

70年代 韓國經濟의 發展 方向

— 産業構造의 人 面을 中心으로 —

韓國産業開發研究所理事

白 南 國

1. 60年代의 回顧

지난 10年동안 우리나라 經濟는 政治的인 安定과 強力한 經濟開發計劃의 推進으로 年平均 8%가 넘는 高度成長을 이룩하였다.

10年前에 비해 國民經濟規模는 2~3倍로 擴大되어 産業構造는 工業 및 社會間接資本 中心으로 高度化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輸出 또는 年平均 40%를 上廻하는 類例없는 伸張率을 나타내어 開發途上國家들 중에서 빛나는 成功譚으로 널리 일컫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莫大한 外資導入과 工業에 依하여 主導된 高度成長의 裏面에는 흔히 開發過程에서, 빚어지는 産業間의 不均衡의 矛盾을 招來하였으며 60億弗에 가까운 外債償還의 重大속에서 開發需要에 따르는 인프레의 暗影은 언제나 國民經濟의 安定基調를 危脅하여 왔다.

또한 輸出이 急激히 增大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輸入을 카바하지 못하여 慢性的인 入超現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實로 지난 60年代의 韓國經濟가 高度成長을爲 主로한 産業基盤의 構築내지 造成期였다고 할 수 있다면 70年代는 이를 뒷받침하여 高度成長 過程에서 빚어지는 不均衡의 矛盾을 是正하고 國際競爭力 確立을爲한 産業構造의 再編成에 力點을 두어 自立經濟의 産業基盤을 한층 더 굳힐時 期라고 하겠다.

2. 韓國産業構造의 問題點

(1) 産業間의 不均衡

韓國經濟는 지난 10年동안 高度成長을 示顯하였으며 特히 製造業部門에서는 年平均 16%라는 類例없는 成長을 記錄하여 왔다.

産業構造는 高度化되어 1960年 當時 鑛工業이 國民經濟上 차지하는 比重이 15.1% 이던것이 1969년에는 26.1%로 擴大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對照的으로 農林水産部門의 年平均 成長率은 4.4%에 不過했으며, 지난 10年 동안 鑛工業生産이 4.2倍 增大한데 비해 農林水産部門의 生産은 1.5倍 增大에 不過하였다.

이와같은 農工間의 不均衡은 農業自體가 지니는 內部的인 脆弱性에도 그 原因이 있겠지만 더욱 重要한것은 政府의 財政投融資政策이 工業部門에 置重하였다는 事實이다.

지금까지 導入된 借款의 産業別 投資狀況을 보더라도 第一次産業에 對해서는 全體 外資導入中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不過 5% 水準으로서 第2次産業이 壓倒的으로 많은 것을 發見할 수 있다

政府의 消極的인 農業政策과 이에 基因한 生産低位 現象의 加重은 結局 外米導入을 強要하였고 農村購買力을 弱화시켜 工業成長 基盤을 脆弱화 시키고 있다.

農業과 工業間의 不均衡現象은 開發途上國의 開發戰略上 不可避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年度別產業構造

(%)

	6 0	6 1	6 2	6 3	6 4	6 5	6 6	6 7	6 8	6 9
農 林 水 產 業	41.4	43.8	39.7	39.1	41.9	38.7	37.9	32.8	29.4	28.1
鑛 工 業	15.1	14.9	16.7	17.8	17.4	19.5	19.8	22.3	24.8	26.1
社會間接資本及其他 서비스業	44.5	41.3	43.6	43.1	40.7	41.8	42.3	44.9	45.8	45.8

資料：經濟企劃院

產業別成長率

(%)

	6 0	6 1	6 2	6 3	6 4	6 5	6 6	6 7	6 8	6 9
總 生 產	2.3	4.2	3.5	9.1	8.3	7.4	13.4	8.9	13.3	15.5
農 林 水 產 業	0.1	10.1	-6.0	7.2	10.2	-0.9	11.0	-5.5	1.2	10.7
鑛 工 業	9.2	3.2	15.7	16.5	5.4	21.1	15.2	22.5	25.9	21.2
社會間接資本及其他 서비스業	2.2	-1.1	9.1	8.1	2.3	10.1	14.8	15.4	15.9	15.5

資料：經濟企劃院

輸出增加率·貿易赤字·產業別

	1 9 6 5	1 9 6 6	1 9 6 7	1 9 6 8	1 9 6 9
輸 出 增 加 率	49.3%	41.7	40.2	39.5	40.4
貿 易 赤 字	288.3	466.1	676.0	1007.4	1201.4
輸 出	175.1	250.3	320.2	455.4	622.5
輸 入	463.4	716.4	996.2	1462.8	1823.6
產業別輸出構造					
農 產 物	8.7%	9.5	4.7	4.3	4.2
水 產 物	13.7	14.7	14.7	10.2	9.4
鑛 產 物	15.3	13.4	10.5	8.2	7.4
工 產 品	62.3	62.4	70.1	77.3	79.0

※ 輸出은 通關基準인

資料：經濟企劃院

제한된 投資財源으로 보다 큰 生産 및 所得效果를 얻기 爲해서는 農業보다는 工業이 보다 有利하다는 것은 自明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長期的이고 持續的인 工業發展의 기틀을 마련하기 爲해서는 對外的으로는 輸出市場의 確保 對內的으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全國民의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는 農民의 購買力向上이 絶對的으로 要請되고 있는 것이다. 昨年만하더라도 우리나라는 食糧不足으로 2億5千萬弗 相當의 外米를 導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結果的으로 食糧輸入에 따른 國際收支上的 壓迫이 工業化에 무거운 負擔이되고 있음을 勘案할 때 農業을 疏外한 工業의 持續的인 發展은 어렵다는 事實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經濟開發 遂行過程에서 커다란 隘路部門으로 登場하는것이 電力, 輸送, 通信等, 社會間接資

本이라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社會間接資本은 10年前에 比하여 2.4倍增大하였다고 하지만 財源不足과 財政投融資가 鑛工業에 置重한 나머지 外部經濟에 對한 投資가 急速한 工業의 發展에 步調를 맞추지 못하였다.

輸送難, 通信施設等の 過少 現象은 이미 顯在化되어 工業化的 發展에 적지않은 支障을 招來하고 있는 것이며, 特히 輸送難으로 因한 物動去來의 遲延은 物價上昇要因으로 크게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2) 工業構造의 脆弱性

우리나라의 經濟가 工業을 主軸으로하여 高度의 成長을 이룩하였음은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自立經濟를 向한 建實한 工業基盤을 構築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다음 몇가지 脆弱性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우리나라의 工業이 重化學工業의 建設에 政策的인 力點을 두고 있지만 아직도 輕工業 體制的 畧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消費財 工業이 主가 되고 있다.

둘째, 消費指向의인 生産構造 속에서도 原料 및 施設村은 거의 輸入에 依存하고 있다. 卽 産業의 수직적 水平的 系列化가 이루어지지 않고 産業이 土着化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工業이 外國의 中間原料에 過重하게 依存하고 있음은 工產品의 外貨稼得率이 60%에 不過하다는 事實을 통해서도 充分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工業發展의 主體가 되는 企業規模가 零細性을 脫皮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比較的 國際的인 生産規模를 갖춘 企業은 肥料 시멘트等 極小數의 産業에 局限되어 있으며, 大部分의 企業이 過當競爭 내지 政府의 特惠下에 異常肥大하여 國內消費者의 희생下에 採算性없는 輸出을 強行하고 있는 것이다.

(3) 貿易構造의 不均衡

韓國의 輸出은 年平均 40%가 넘는 高度의 成長은 하여 왔지만 輸入規模의 增加率도 이에 못지않게 增大되어 貿易赤字의 “罅”은 크게 擴大되었다.

1969年만 보더라도 商品輸入은 18億2千萬弗로서 同期間의 輸出實績의 3倍를 上廻 入超現象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러한 入超現象은 經濟開發計劃에 따른 機械類等의 施設材 導入과 工產品 輸出增大에 따른 輸出用輸入原資材의 輸入增大에 基因한다고 볼 수 있다.

輸入需要를 同伴해야하는 우리나라의 輸出은 海外原料를 加工하는 勞動集約的 産業에 集中되고 있으며 輸出構造가 工產品 爲主로 됨에 따라 外貨稼得率은 相對的으로 低下하는 現象을 招來하게 되었다. 이러한 現象은 海外依存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貿易構造上 短期的 으로는 不可避한 現象이라고 解釋될 수 있겠지만 從來의 政府의 斷片的인 輸出産業政策은 10億弗輸出目標達成이라는 難題와 關聯하여 이미 그 限界性을 露呈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經濟規模의 量的成長과 아울러 輸出産業基盤의 強化내지 構築을 通하여 韓國經濟發展의 돌파구를 輸出增大에서 찾지 않

으면 안될 時期인 것이다.

2. 産業構造政策의 方向

第3次 經濟開發個年 計劃(1972~1976)의 基本目標을 輸出의 劃期的인 增大와 農業의 革新的開發에 두며 그 重點目標로서 商品 輸出(目標年度) 30億弗臺 達成, 食糧自給, 重化學工業 促進 社會間接資本의 均衡된 發展等에 重點을 둔것은 兩次經濟開發計劃의 經驗을 土臺로하여 均衡된 經濟發展의 方向을 明確히 提示하여 주는 靑寫眞이라고 할수 있겠다.

(1) 食糧自給과 農村近代化

産業間의 不均衡成長은 農業을 위축시켜 農村의 購買力을 弱화시킴은 勿論 外米導入이 國際收支上의 壓迫을 招來, 結局 工業의 持續的인 發展을 阻害한다는 事實은 이미 指摘하였으며 工業化의 持續的인 推進力을 爲해서는 農業의 發展이 前提되어야할 것은 勿論이다.

침체한 農業發展의 活路를 트는 길은 무엇보다도 政府가 지금까 지의 消極的인 農業政策을 벗어나 財政投融資를 바탕으로한 重農政策을 과감하게 實踐에 옮기는 일이다. 첫째, 政府는 農民들의 生産意慾을 고취시킬수 있는 投資誘引 卽 適切한 利潤을 補償해야할 것이다. 高米價政策의 遂行이 一般物價를 자극하여 安定基調를 危脅하는 것이라면 이미 各國에서 實施하고 있는 二重穀價制를 採擇하는 問題도 考慮해야 할 것이다.

農民들에게 利潤의 保障이 없이 生産을 強要할 수 없는 것이며 農民所得의 增大없이 增産을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政府는 農業部門에 集中的인 財政投融資를 하여 生産性向上을 위한 營農方式 改良에 最善을 다해야 할것이다. 耕地整理를 通한 協業化 내지 資本主義的인 生産體制的 導入이 必要하며 農業用水開發, 種子改良等에 보다 많은 財源이 投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政府는 우리의 基本的인 食生活을 爲主로한 糧穀增産政策 以外에 工業原料 및 輸出用 原資材를 積極的으로 開發하여 二次産業의 連繫性을 強化해야 할 것이다.

(2) 基幹産業 및 輸出産業體制의 構築

우리나라의 工業化過程에서 궁극적인 自立經濟의 方向은 繼續적인 投資 및 所得效果를 實現시킬 수 있는 重化學工業의 建設과 이에 따른 聯關産業의 開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特히 重化學工業의 輸入代替效果가 他産業에 比하여 월등히크다는 事實을 勸案할때 貿易逆調 打開을 위해서도 이 部門에 政策의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第二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서도 工業構造의 高度化를 目標로 삼고 철강 및 機械工業과 石油化學工業建設에 力點을 두어 왔지만 綜合製鐵工場의 着工을 除外하고는 아직도 別다른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資本및技術이 不足한우리의 實情으로서 大規模의 重化學工業을 發展시키는데는 許多한 隘路가 뒤따른다. 特히 市場性의 問題는 가장 큰 難題로서 登場하고 있는 것이다

莫大한 外資導入에 의해 工場을 建設했을경우 市場의 협소로 因해 採算이 맞지 않을때 이를 如何히 克服해야 할 것인가? 先進諸國의 남모스企業과 輸出競爭에서 優位를 確保한다는 것은 거의 바라다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는 地域經濟協力을 土臺로한 國際優位産業의 開發을 通하여 解決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줄 안다

最近의 韓國과 中國間의 「카프로 락담」事業과 「VCM」事業의 相互配分 및 補完적인 經濟協力體制의 胎動은 韓國의 産業이 國際市場을 바탕으로한 全面的인 改編없이는 그 發展이 限界에 達하고 있음을 示唆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는 國際分業體制를 考慮한 輸出先導型 産業體制로 轉換하는데 政策의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第三次五個年計劃의 目標年度인 1976년에 30億弗臺의 輸出達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政策

적인 努力이 傾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國際競爭力 確立을 위한 輸出産業의 基盤 擴充이 무엇보다도 切實히 要請되며 國際적인 輸入需要에 適應할 수 있는 産業體制로의 改編이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輸出産業의 基盤은 長期的인 眼目에서 國內關聯産業과의 系列化 特히 輸入代替産業과 國產原資材育成産業과 密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國際적으로 優位성을 確保할 수 있는 特定産業을 集中的으로 開發하여 輸出市場의 多邊化내지 輸出市場의 深化를 企圖해야 할 것이다.

7. 結 語

지금까지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不均衡과 이에 따른 副作用을 指摘하였으며, 開發過程에서는 비록 工業에 優先적으로 投資가 集中된다할지라도 結局은 農業部門의 發展없이는 工業의 持續적인 發展이 困難하다는 것은 餘他國의 開發經驗을 通해서도 흔히 찾아볼수 있는 常例이다.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는 그 發展方向을 農工併進體制의 確立과 아울러 輸出産業體制로 轉換할 時期가 到來된 것이다. 農業과 工業은 相互有機적인 聯關關係下에 系列化되어야 할 것이며 農業과 工業이 系列化되고 土着化될때 輸出産業및 輸入代替産業의 基盤은 擴充되고 慢性的인 貿易不均衡은 打開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를 輸出産業體制로 轉換하는데는 資本蓄積의 貧困, 市場의 狹少, 國內資源의 限界性等 許多한 難題가 가로놓여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難題는 國際分業에 立脚한 地域經濟協力體制의 構成을 通해서 韓國經濟와 地域經濟間의 보다 진밀한 有機적인 關係를 맺으므로 解決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승공없이 통일없고 방첩없이 평화없다』